

기증자 이야기

기증자 / 김 병 성

내 삶의 아름다움



내가 사는 이유가 남을 돕기 위함은 아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나의 삶의 모습은 실로 아름다움이였다.

고등학교 때 가장 많은 헌혈을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마지못해 끌려갔던 터미널 옆 헌혈 버스도 그때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서 골수기증이라는 파랑새는 자연스레 내게 다가 왔다. ‘나도 언젠가는...’ 이라는 짝막한 되뇌임을 속삭이며...

그리고 몇 해가 지났을까 나의 진로를 정해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우연히 읽게 된 신문에서 나는 몇 해 동안 잊고 살았던 파랑새를 보았다. 어느 여

자분의 용감한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 그것도 한 두 번이 아닌 세 번이었다. 그랬다... 그 여자분은 환자에게 파랑새를 선물해 주었던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혈액원으로 향했다. 그리고 또 몇 해가 지났을까. 종종 골수를 기증했다는 내 자신에 대한 뿌듯함을 느끼면서...

그러나 아무런 연락이 없어 '나에게 이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구나.' 라는 아쉬움을 느끼게 할 무렵, 연락이 왔다. 나와 같은 조직의 환자가 있다는... 그때의 기분이란...

몇 가지 조직 검사를 한 다음, 지금의 나의 집사람이 되어 있는 그때의 여자 친구와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병원으로 향했다. 수술 날이 다가와 집에도 나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다.

두려워해야 할 일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수술 날, 마취가 나의 눈을 감기게 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주위에는 내 가족들이 나를 지키고 있었다. 등 밑 나의 골반에서는 묵직함이 느껴졌다.

마취는 서서히 사라지고 아픔이 서서히 다가왔다. 그러나 그 아픔은 절대 미워할 수 없었다. 누군가에게 웃음이 되었을 테니까. 한 여름밤의 꿈처럼

그렇게 나를 스치고 갔던 골수기증은 나의 삶에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행동이라 생각된다.

1만 5천 분의 일의 확률을 조금이라도 좁힐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국민의 참여 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도 그 확률을 기다리며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병실 한 칸에서 누워 있을 누군가를 생각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from : 충북 어느 곳에서 경찰을 하고 있는 사람이...



기증자 이야기

기증자 / 김 양 원

내 삶에 다시 없을지도 모를 기회



그 날은 바쁜 아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보자!' 하고 결심한 일들을 실천하는 첫 걸음으로, 출근 하기전에 집 앞 목욕탕을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바쁜 손놀림으로 현관 열쇠를 돌리다가 우연히 돌린 시선에 조그만 파란색 우편함에 반으로 접힌 채 꽂혀 있는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불편함에 꽂혀져 있었는데, 보통 집 주소로는 내 앞으로 오는 편지나 청구서가 드물었기 때문에 별 관심 없이 지나쳤던 것을 그제야 알아차리게 된 것이었고, 누가 보

낸 것인지 확인하지도 못할 정도로 출근 준비에 정신 없었던 나는 결국 택시를 탄 뒤에야 봉투 속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갈하게 타이핑된 편지를 읽어가면서 내 가슴은 주체하기 어려울 만큼 두근거리고 흥분되고 있었습니다. 머리 속에서는 당장 부모님을 설득할 말이 획 획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골수기증신청을 한 것은 대학시절 장기 기증 캠페인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골수 기증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처음 몸의 어떤 부분을 기증하는 일에 대해 생각할 때에 결심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희박한 확률이라고는 하지만, 만일 내가 기증을 해야 할 상황이 된다면 반드시 약속한 대로 하겠다고... '반드시' 라는 말에 내 마음이 허락하는 한도가 골수기증과 안구기증이었습니다. 정말로 골수기증을 하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았었지만 이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망설이거나 다시 생각해 보지 않고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내 몸의 어느 부분을 나누어주는 일인데도 무섭다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의문은 조금도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결심만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올랐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듯한 기분이었다고

나 할까, 나와는 전혀 관계 없는 어떤 사람과 내가 같은 유전자를 가진 골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고 오히려 내 인생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까 라는 모험심이 생기기까지 했습니다.

편지로 자세한 내용과 상황을 알려주었던 유효순 코디네이터와 첫 통화를 하기까지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다. 부모님들은 걱정하시긴 하셨지만, 내 의사를 존중해 주셨고 직장에서도 일주일 정도를 쉬어야 하는 상황을 이해하여 주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좀더 살펴본 뒤에 진행하자는 코디네이터의 말에 조금 실망할 정도로 나는 많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길 한달 여, 갑작스레 유효순 코디네이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환자가 가능한 빨리 기증을 받아야 할 상황이 되었다고... 혈액 채취와 검사가 끝나고 날짜가 정해진 후, 나는 부모님께 골수기증을 위해 입원해야 하는 날짜를 알려드렸습니다.

그 때부터 시작된 부모님의 반대란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 드린 까닭에 부모님은 '어쩌면 골수기증을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셨던 모양이었습니다.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여러 사람을 통해서 골수기증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들으신 어머니의 반대는 더 심했습니다. 원래 현혈하는 것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으셨던 어머니는 당신의 사랑하는 딸, 그것도 시집도 안 간 딸에게 혹시 골수 기증한 뒤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닌가 하고 염려가 깊으셔서 눈물로 나를 말리기 시작하셨고, 처음에는 내 의견을 존중해 주셨던 아버지도 어머니의 걱정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시면서 진지하게 나를 설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부모님의 눈물의 만류를 겪으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아프게 해 드려야 한다는 사실에 여러 날을 울며 지내면서 그 때까지 가벼운 기분으로 골수기증을 생각하고 있었던 나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설득하면서 골수기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내가 얻은 결론은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학적인 어떤 지식이나, 골수이식 절차의 신뢰성 같은 것이 나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기는 했지만, 나의 마음을 확고히 정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처음 그 우편물을 받고 절실하게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다룬 어떤 것보다 생명 쪽에 서게 했습니



다. 다른 어떤 이유보다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굳게 섰습니다. 나의 마음이 확고히 결정되는 동안에 아버지는 의료 계통에서 일하시는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골수이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상의하셨고, 어머니를 설득하셔서 결국에는 부모님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허락은 받았지만, 여러 가지로 마음 아프게 해드린 것 같아, 입원하기 전에 광주 집에 내려가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며 서로 위로해 드리고 싶어, 오랜만에 서울에 일이 있어 올라오신 아버지와 함께 광주에 내려갔습니다.

집에 있을 땐 몰랐는데 한 달만에 뵈는 아버지의 모습, 작업복을 입으신 아버지가 왜 그렇게 작아보이던지... 고속도로 휴게소 유리창에 비친 나와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내가 아버지의 살을 뜯어먹고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밤늦게 집에 도착해서 “엄마!! 나왔어!!”하고 크게 외쳤는데도 낮 동안의 피곤한 일상에 깊이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는 어머니의 한달 못 뵈 사이 또 많이 늘어 버린 주름진 얼굴에 참 가슴 아팠습니다. 평소에는 살 좀 빼라며

잔소리가 많으신데, 그런 말은 한번도 하지 않으시고, 어머니는 그저 안쓰러워하는 눈으로 나를 보십니다. 아침에 나보다 먼저 일어나서 내 얼굴을 쓰다듬고 계십니다. 그 손길이 참 따스하면서도 따갑습니다. 매일같이 일하며 닳아서 엄마 손톱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손바닥 피부가 꺼끌하게 일어나서 손을 잡아드리기가 민망해졌습니다. 그런 엄마한테 골수기증은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다고 안심시켜 드릴만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이야기를 들으신 어머니는 오히려 “이왕에 주기로 했으면 지켜야 할 거 철저히 지켜서 깨끗한 걸로 줘라” 하시며 내 마음을 안심시키셨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편도선 수술을 위해서 며칠 입원했던 아득한 기억밖에 없었던 나는 어색한 가짜 환자로 짧은 병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 일찍 수술실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생각지 못했던 여러 준비 과정이 조금 어색했지만, 그다지 힘든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간 뒤에는 금방 잠들어 회복실에서 깨어났고, 그 뒤에는 모래주머니를 골반 아래에 대고 지혈되기만 기다리면 되는 것이어서, 한순간 조금 힘든 통증이 있었을 뿐, 크게 어려운 일은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올라오서

서 많이 안심되기도 했는지 이렇게 쉽게 끝나는 것인가 조금 허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골수가 잘 전달되어서 환자가 내 골수를 받고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마음이 뿌듯해지기도 했습니다.

입원한 뒤에 나를 위해 준비된 배려들이란 정말 미안해서 어찌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세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나를 위해 준비된 것들이 펼쳐질 때마다, 나에게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나를 위해 쓰는 이 돈으로 다른 중요한 일을 위해 쓰면 좋겠다는 송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보살핌에서 떨어져 사는 자취생이라 하루 더 1인실에 묶게 되었을 때의 그 미안한 마음이란 정말 어떻게 표현이 안 될 정도입니다.

퇴원 후 여러 개월 지난 지금까지 제 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활기차진 것 같습니다. 골수기증이라는 쉽사리 만날 수 없는 소중한 기회를 통해서 나의 삶을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었고, 내 앞길에 대해서, 나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또 부모님의 사랑과 마음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해 주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얼마

나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확실치 않은 소문을 듣고 알 수 없는 미래를 걱정하느라 골수기증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기회를 놓치시면 분명히 후회하실 거라는 겁니다. 내가 잃은 것은, 얻은 것에 비해 너무나도 작은 한 부분일 뿐이고, 또 그 잃은 부분조차도 자연스럽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결국 내게 있어서 골수기증은 마이너스(-)되는 일 없이 너무나 큰 플러스(+)를 얻을 수 있는 돌도 없는 기회였습니다.

골수기증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코디네이터님과 걱정하시면서도 뒤에서 지원해 주신 너무나 사랑하는 부모님,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날 위해 기도해준 사랑하는 친구 명애, 민영, 입원하기 전에 함께 기도해 준 사랑하는 디사이플스 지체들, 무엇보다 나에게 생명을 아낌없이 주시고, 다른 생명을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증자 이야기

기증자 / 남 효 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안녕하세요?

글을 올리기가 너무 힘들어 한참을 망설이고 고민하다 저의 짧은 생각과 당부의 글을 적어 봅니다.

기억이 희미하지만 96년 헌혈을 하면서 골수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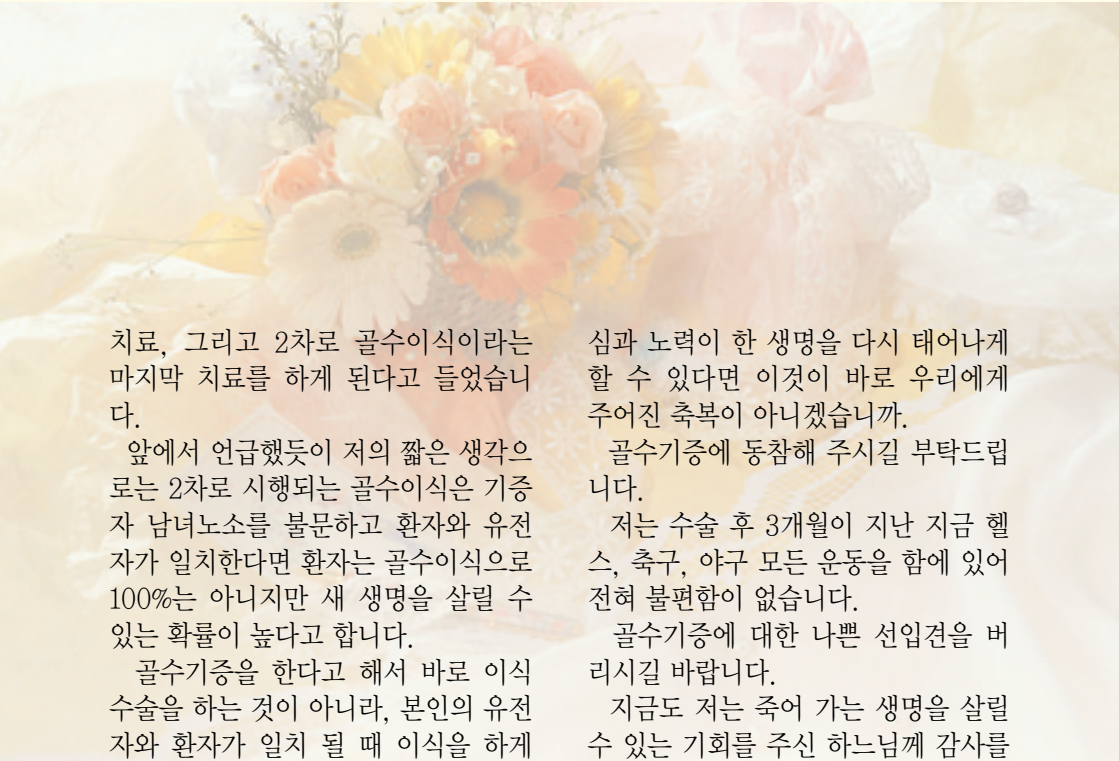
백혈병이란 '죽음'이라는 인식을 갖

게 되었습니다.

의학이 발달되지 못했을 때에는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의학이 발달되면서 백혈병이 불치의 병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무관심으로 빚어진 병이라 생각합니다.

백혈병 치료는 1차로 약물과 방사선



치료, 그리고 2차로 골수이식이라는 마지막 치료를 하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2차로 시행되는 골수이식은 기증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환자와 유전자도 일치한다면 환자는 골수이식으로 100%는 아니지만 새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골수기증을 한다고 해서 바로 이식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유전자와 환자가 일치 될 때 이식을 하게 됩니다. 저 또한 7년을 기다린 끝에 기증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골수이식이란 죽어 가는 우리 모두에 부모, 형제, 자식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며, 희망이며, 축복된 선택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은 아니지만 작은 관

심과 노력이 한 생명을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골수기증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수술 후 3개월이 지난 지금 헬스, 축구, 야구 모든 운동을 함에 있어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골수기증에 대한 나쁜 선입견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저는 죽어 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글이나마 읽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와 행복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기증자 이야기

기증자 / 윤 보 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처음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환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묘한 설레임과 흥분감이 있었다.

평소 헌혈을 자주하던 나는 헌혈의 집에 비치된 골수기증 홍보책자를 보고 쉽게 골수기증을 신청했다.

적은 양의 혈액 채취로 골수기증 접수 절차도 간편했고, 2박3일의 짧은 수술기간과 2~3주후면 완전 재생된다는 내용 등으로 많은 고민 없이 골수 기증을 신청하게 되었다.

그 뒤로 3년이 흘렀고 골수협회로부터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환자가 나타났다는 연락을

받았다. 막상 수술을 하게 된다는 생각을 하니 묘한 떨림과 설레임, 흥분감이 생겼다.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런 건 아니었다.

우편물에 함께 실려온 뉴스레터에서 기증자들의 수기나 인터넷을 통해 개인적으로 알아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거부감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이런 내 생각과는 달리 주위 사람들이 더 큰 걱정을 하였다.

“시집도 안간 처녀가 겁도 없어. 어쩔려구 그래...”

“너 그거 장난 아니게 고통스럽다던데... 텔레비전에서 안봤어?”

“나중에 허리 잘못되면 어쩔려구. 전신마취하면 몸에두 안좋은데...”

수술을 하기로 했다는 말에 열명 중 아홉은 왜 하느냐고 반문을 했다.

텔레비전에서 비춰오던 백혈병 환자 치료과정 모습만 보고 골수기증수술도 같을 거라는 잘못된 오해와 편견이 대부분이었다.

주위에서 골수이식수술을 한 사람들에 직접 들은 내용이 아니라 막연히 그럴거라는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난 사람들에게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나서 말해주겠다고... 가지고 있는 오해와 불신을 없애 주겠다고 말했다. 코디네이터분들께 골수이식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는 과정에서 내 신념은 더 확고해졌다.

유전자가 확실히 일치하는지 다시 재검사가



들어가고 종합검진을 받고, 자가수혈, 그리고 수술 날까지 시간이 짧지는 않았지만 무균실에서 고생하고 있을 환자를 생각하니 지루함이 사라졌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수술 날이 왔다.

수술실에서 “숨 크게 쉬세요~”란 말과 함께 잠깐 잠이든 나는 “수술 다 됐어요~”란 말과 함께 회복실에서 눈을 떴었다. 그 시간이 2시간 남짓... 회복실에서 병실로 옮겨진 직후 가족들한테 바로 수술 끝났다고 전화를 할 정도였으니... 그리 아프다거나 힘들진 않았다.

환자 분께 내 골수가 보내졌다는 말을 듣고 나니, 참 많이 뿌듯했었다.

또한 마취가 풀릴 때쯤 통증이 심하다고 했는데 진통제를 맞을 만큼 큰 통증도 없었다.

지혈을 위해 모래주머니를 대고 4~5시간 정도 침대에 누워 있을 때가 답답했던 게 가장 참기 힘들었던 것 같다. 아픔에서 오는 게 아니라 환자세로 오랫동안 있기가 불편했었다.

오후에 병문안 오는 친구들도 오전에 수술 받았던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신기해 했다.

좀 빠근함이 있긴 했지만 앉아서 수다도 떨고, 음식도 먹고,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었다.

대부분의 기증자분들은 수술 다음날 퇴원한다고 그러셨는데, 난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집에서 간호 받기가 좀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골수협회의 배려로 하루 더 입원했었다.

멀쩡한데 하루 더 입원을 하자니 환자분께 많이 죄송스러웠지만 협회에서 배려해주시는 마음을 받기로 했었다.

퇴원하는 날 집 앞까지 데려다 주시는데 너무 감사했었다.

환자분은 이식수술 후 생각 까지 6개월, 완치 판정을 받기까지 5년이 지나야 한다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좀 착잡해졌다. 난 조금만 지나면 다시 정상적으로 되는데 환자분은 또 기나긴 싸움을 하셔야 한다니... 아무쪼록 잘 견디시고 완쾌되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위에서 천사라느니 나중에 복 받을거라느니 이런 반응에 참 무안하고 민망스럽다.

솔직히 말하자면 난 대단한 일을 한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남들보다 조금 먼저 했을 뿐이므로...

골수기증에 관심이 있으나 수술에 관한 두려움으로 망설이고 계신분들께 한 말씀 드리자면, 그럴 확률이 낮겠지만 또다시 유전자가 일치하는 환자분이 나타난다면 주저 없이 다시 할거라고...

기증자 이야기

기증자 / 정재우

하나님 감사해요!



00년도 12월쯤인가 문산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을 때 우리 부대에 헌혈차가 왔다는 소식이 상황을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전방에는 말라리아 때문에 잘 오질 않는다고 얘기 들었는데 아주 가끔 드물게 온다고 했습니다. 그 때 당시 계급이 일병! 군대에는 여자가 없기 때문에 간호사 누나들 보려고 헌혈을 하러 간 기억이 납니다.^^

말라리아 때문에 전혈이 아닌 혈장만 뽑는 헌혈이었는데, 그 때 헌혈이 다 끝나 갈 때쯤에 간호사 누나 한분이 오셔서 저에게 골수기증신청서를 한 장 건네 주셨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참 좋은 일 같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한사람으로서 아무런 망설임 없이 신청서

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02년 11월 겨울 집 앞에 있는 우체통에 제 이름 앞으로 온 서류 봉투를 보게 됐고, 혹시나 했는데 저와 맞는 사람이 골수기증을 기다린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장형인 코디네이터님의 명함과 함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고. 하지만 바로 연락 드리진 못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연락을 드린 건 한달 뒤인 12월을 며칠 앞두고였습니다. 전화를 드렸을 때 비슷한 유형의 DNA를 가진 여자 분이 3일전 정도에 먼저 혈액 샘플을 채취하고 검사를 시작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때 '아~내가 조금만 일찍 전화했어도 내가 기증할 수 있었던건데~' 하고 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먼저 DNA검사를 받으시는 분이 일치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고, 그런 확신이 들자 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제가 기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월초쯤에 다시 전화가 왔는데, 먼저 검사 받으신 분이 일치하지 않아서 제 혈액 샘플을 채취해야 할 것 같다고... 그 전화를 받고 떨렸지만 한편으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



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며칠 뒤에는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조금은 불안해 하셨지만 조금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더니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엔 기꺼이 해도 좋다고 승낙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는 제가 더 대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한결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혈액 샘플은 제가 직접 골수은행협회에 찾아가서 이루어졌고, 그곳에서 이영민 과장님을 만나 뵈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으신 분이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샘플 채취 후에 골수기증에 관한 설명과 그 외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와 그밖에 골수은행협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들을 설명 받았습니다. 그리고 2월 부터 한 달 동안 음식도 가려서 먹고 그 기간 중에 두 번의 자가헌혈과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기증 날짜는 0월로 잡혔고,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떨리는 마음은 더했지만 한편으론 기쁜 마음도 더해졌습니다. 2차 자가헌혈을 하러 갔을 때는 저보다 먼저 기증하신 분을 만나서 골수기증에 관한 더욱 자세한 이야기도 전해 주셨고, 자신감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입원 일정은 2박3일

정도였고 첫날은 간단한 혈액검사 정도였고 둘째 날 아침에 수술을 했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과는 좀 다르게 하반신 마취만 했습니다. 수술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그리고 병실에서 하루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채취한 골수는 수술 직후 바로 기증 받으시는 분이 있는 병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뻐는지 그 골수를 기증 받은 가족은 얼마나 더 기뻐했을 지를 생각 해보니 그 기쁨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바로 퇴원을 했고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기증하기까지 각별히 신경 써 주신 유효순 코디네이터님과 장형인 코디네이터님 그리고 이영민 과장님께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증하기까지 기도로 후원해 준 저희 교회 청년부 목사님과 청년지체들, 교회 집사님, 그리고 항상 저의 힘이 되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골수를 기증 받으신 분도 항상 건강 잃지 않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천하보다도 한 생명이 더 귀하다는 것을...